

트럼프 대통령 “종전안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불가”

SNS에 “이란 ‘대표들’ 답변 읽었다...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난달 대면회담 이어 파키스탄 중재 비대면 협상도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

도 오늘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에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를 최우선 순위 목표로 거론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역시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

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국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날 미국에 보낸 제안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 종식

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스님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지난 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 마바드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채 이뤄진 비대면 협상도 결렬된 것이다.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역

봉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또 한 차례의 고비에 봉착한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며 2시간여 전에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우리나라를 바숴어 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부산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시진핑, 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텐탄공원 함께 방문

백악관, 트럼프 2박3일 방중일정 공개...최소 6회 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0일(미국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天壇) 공원을 둘러본 뒤 국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워싱턴DC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켈리 부대변인은 전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중관계는 미국인의 안전·안보·번영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과,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작년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